

P.I.R.A.M

백천동(百川洞) 겨티 두고 만폭동(萬瀑洞) 드러가니

은(銀) 7 툄 무지개 옥(玉) 7 툄 룡(龍)의 초리

섯돌며 썸는 소리 십리에 즈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Q.3 화자는 자연을 대하는 자신의 감정을 ‘은 같은 무지개’와 ‘옥 같은 룡의 꼬리’에 비유하여 드러내고 있다. (O / X)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 사용x)

금강대 맨 우층의 선학(仙鶴)이 샷기 치니

춘풍 옥적성(玉笛聲)의 첫잠을 깨뚫던디

호의현상*이 반공(半空)의 소소 뜨니

서호 넷 주인*을 반겨셔 넘노는 듯

Q.4 ‘서호 옛 주인’은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인물이다. (O / X)

* 호의현상 :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란 뜻으로 학을 가리킴.

* 서호 넷 주인 : 송나라 때 서호에서 학을 자식으로 여기며 살았던 은사(隱士) 임포.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사 진혈대 고태 올라 안즌마리

여산 진면목이 여괴야 다 뵈는구나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샤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Q.5 [2021.06 변형]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라는 행위를 부각하는 대구를 사용하여 봉우리의 정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O / X)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짓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놉흘시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사로려

천만겁(千萬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

어와 너여이고 너 가트니 또 잇는가

Q.6 화자는 활유법을 사용하여 자연물에 대한 경탄을 드러내고 있다. (O/X)

개심대 고터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녑녑(歷歷)히 혀여 하니

봉마다 멧쳐 잇고 굻마다 서린 괴운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고자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할샤

* 동명 : 동해 바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B,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비로봉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늑야 놉똥던고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논 모르거든

넙거나 넙은 천하 엇찌ㅎ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ㅎ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ㅎ거니 느려가미 고이흘가

Q.7 [2010.06] 화자는 자신의 시야를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 (O / X)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그 알픽~’),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B

원통골 7는 길로 사자봉을 초자가니

그 알픽 너러바회 화룡소 되어세라

천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주야의 흘녀 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느냐

음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어스라

Q.8 ‘화룡소’를 감상한 결과는 이후 화자가 ‘음애에 이온 풀’을 살려내겠다는 의지로 이어지고 있다. (O / X)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 너머 디여

외나모 써근 다리 불정대 올라 하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애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가티 플터 이셔 베가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 이제 이셔 고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 하려니

들을 제논 우레러니 보니논 눈이로다
→ 들을 때는 우레더니 보니까 눈이로다.

‘영중’은 당연히 학생이 몰랐던 단어겠죠? 관찰사가 일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요 부분 전까지가 관동으로 부임하는 과정이었고, 여기부터는 관동에 부임한 이후에 유람을 다니는 장면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뭐 딱히 별다른 일도 없고, 봄 내음이 나는 3월이라 어디론가 놀러 나가는 모습입니다. ‘행장을 다 떨치고’라는 부분은, 뭔가 잡다한 짐은 놓고 가볍게 피크닉을 가는 느낌을 말하는 것 같네요.

‘만폭동’에 가서 자연의 경치를 묘사하는 부분이 아주 감각적입니다. 은 같은 무지개가 있고, 옥 같은 용의 꼬리가 있으며, 그 꼬리가 돌면서 내는 우레 같은 소리가 멀리까지 들린다네요. 이렇게 소리가 큰 ‘용의 꼬리’는 뭘까요? 약간 센스가 있는 학생이라면 폭포를 묘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포는 용의 꼬리처럼 보이고, 근처에 무지개도 생기면서, 소리가 엄청 크겠죠. 멀리서 들었을 때는 우레 소리가 났는데 가까이 가보니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폭포 사진의 밑부분을 보면 물방울들이 부딪히며 하얗게 떨어지죠? 그 모습을 ‘눈’으로 비유한 겁니다!

Q.3 화자는 자연을 대하는 자신의 감정을 ‘은 같은 무지개’와 ‘옥 같은 용의 꼬리’에 비유하여 드러내고 있다.

X, ‘은 같은 무지개’와 ‘옥 같은 용의 꼬리’는 화자의 감정을 비유한 것이 아니라, ‘만폭동’에서 마주한 자연의 경관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영중 : 관찰사의 감영 안. ‘감영’은 관찰사가 일하는 장소(관청)를 말함.

풍악 : 금강산.

석경 : 돌이 많은 좁은 길.

**행장 :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

초리 : 꼬리.

*즈자시니 : 잣았으니, 퍼졌으니.

**우레 : 번개가 치는 소리.

금강대 맨 우층의 선학(仙鶴)이 샷기 치니

→ 금강대 맨 윗 층(꼭대기)에 선학이 새끼를 치니

춘풍 옥적성(玉笛聲)의 첫잠을 깨뚫던디

→ 봄 바람 옥피리 소리에 첫 잠을 깨었는지

호의현상이 반공(半空)의 소소 뜨니

→ 학이 공중에 솟아 뜨니

서호 넷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 서호의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하다.

‘옥적성’은 알기 힘든 단어지만, ‘옥 玉’+‘피리 笛’+‘소리 聲’로 풀어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고전시가에서 마지막에 ‘성(성)’이 붙은 단어가 나오면 그냥 무슨 ‘소리’겠거니 하면 됩니다. 조금 더 나가자면, 여기서는 봄바람의 소리를 옥피리 소리에 비유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대(臺)’라는 장소 명사가 나오면, 뭔가 높은 장소입니다.

계절적 배경은 '시절(時節)이 삼월인 제~'에 이어 여전히 봄입니다. 학을 보면서 '서호 옛 주인'의 고사를 인용하는 것은 학들이 자기를 '서호 옛 주인'으로 인식하고 반가워한다는 내용이니까, 화자 스스로와 '서호 옛 주인'을 동일시하는 태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급당유(汲長孺) 풍치(風彩)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와 비슷한 표현이네요!

Q.4 '서호 옛 주인'은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인물이다.

O, 학들이 자신을 '서호 옛 주인'으로 여긴 채 솟아 뜬다고 표현합니다. 이후에도 화자는 여러 성인(聖人)들, 신선과 스스로를 동일시합니다.

*~성(聲) : ~소리.

선학 : 두루미의 한 종류.

삿기 : 새끼

**춘풍 : 봄바람.

호의현상 :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란 뜻으로 학을 가리킴.

반공 : 별로 높지 않은 허공.

소소 : 솟아.

*서호 옛 주인 : 송나라 때 서호에서 학을 자식으로 여기며 살았던 은사(벼슬하지 않던 선비) 임포.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구버보고
 → 소향로와 대향로를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혈대 고터 올라 안즌마리
 → 정양사 진혈대에 다시 올라 앉으니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보이는구나
 → 여산 진면목이 여기서야 다 보이는구나.

화자는 현재 '진혈대'에 올라가서 '소향로', '대향로'를 보는 상황인데, 여기서 '여산 진면목'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제가 밑에 적어두었듯, 중국의 '여산'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인데, 보는 곳에 따라 경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진면목을 알 수 없다고 얘기되는 산입니다. 지금 화자는 '소향로'와 '대향로' (금강산)의 모습에서 '여산의 진면목'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지금 자기가 보는 경치가 엄청 멋지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산' 정도는 고전시가에 자주 등장하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즌마리(안즌마리) : 앉으니.

**여산 : 중국의 유명한 산. 보는 곳에 따라 경치가 달라지기에 소동파의 시에서 '진면목을 알 수 없다'라는 속성이 부여됨.

*여기야 : 여기서야.

*보이는구나 : 보인다.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샤
 → 아아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날거든 뛰디 마나 섰거든 솟디 마나
 →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 말지.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갓는 듯
 → 연꽃을 꽃아 놓은 듯, 백옥을 묶어 놓은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 동해 바다를 박차는 듯, 북극을 괴어 놓은 듯.

‘조물주가 야단스럽다’라는 표현은 조물주가 만든 자연의 풍경이 화려하다는 의미로, 자기가 보고 있는 풍경을 예찬하는 어구라고 보시면 됩니다(뒤에서 배울 「상춘곡」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화자의 눈앞에 놓인 자연(금강산)의 풍경이 꼭 나는 것 같으면서도, 뒤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서 있는 것 같고... 엄청 다양한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 비유가 사용되어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군요.

Q.5 [2021.06 변형]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라는 행위를 부각하는 대구를 사용하여 봉우리의 정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X, 날고, 뛰고, 솟는다는 표현은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역동적인 느낌을 드러냅니다. 정적인 느낌을 나타내려면 대상이 정지해있어서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조화옹 : 조물주. 신.

*헌사롭다(헌스롭다) : 야단스럽다.

부용 : 연꽃.

동명 : 동해 바다.

눙홀시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봉이
 → 높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사로려
 →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사뢰려 하느냐

천만겁(千萬劫) 지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
 → 천만겁이 지나도록 굶힐 줄을 모르느냐?

어와 너여이고 너 가트니 또 잇는가
 → 아아 너로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잇는가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며, 각각이 높으면서, 외로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화자는 꼭 그들이 하늘에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이 역시 활유법이 사용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굶치지 않고 선 두 봉우리를 보며, ‘너희 같은 이들이 어디 있겠냐!’라고 감탄하는 장면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Q.6 화자는 활유법을 사용하여 자연물에 대한 경탄을 드러내고 있다.

O, ‘망고대’, ‘혈망봉’을 두고 일을 사뢰려 한다, 굶힐 줄을 모른다고 하며 마치 대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활유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연물을 예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미러 : 치밀어.
 천만겁 : 아주 오랜 시간.
 가트니(갸트니) : 같은 것이.

개심대 고터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 개심대에 다시 올라가 중향성을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녀녀(歷歷)히 혀여 하니
 → 만이천봉을 또렷하게 헤아려 보니

봉마다 맺쳐 잇고 곳마다 서린 기운
 →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 맑거든 깨끗하 지나 말지 깨끗하 거든 말지 말지

더 기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고자
 → 저 기운을 흠어 내어 인걸을 만들고 싶구나

‘개심대’에서 봉우리들을 보면서, 그 봉우리들에 맺혀 있는 기운을 보고 감탄합니다. ‘맑거든 조티 마나~’ 부분은 앞에 나온 ‘날거든 뛰디 마나~’랑 형식적으로 유사하네요.

그 봉우리에 있는 기운으로 ‘인걸’을 만들겠다는데, 이는 앞에 나온 ‘~급당유 풍취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처럼 ‘선정포부’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관리로서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자연에 대한 감상이 나랏일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녀녀히(역력히) : 분명히.
 *조타 : 깨끗하다, 맑다.
 **인걸 : 뛰어난 인재.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 모습도 끝이 없고 자세도 많기도 많구나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연마는
 → 천지 생겨날 때 자연스럽게 되었건만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할샤
 → 이제 와 보게 되니 뜻이 있기는 있구나.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봉우리들을 감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모양과 자세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건 앞에 나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연마는’의 표현은, ‘이런 산의 모습이 천지가 생길 때 자연스럽게(별 뜻 없이) 그냥 생긴 것이겠지 만~’ 정도의 의미이고, 이어지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할샤’에서는 ‘아, 그래도 막상 와서 보니까 뭔가 뜻을 가지고 만든 것 같구나’라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누가 뜻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걸까요? 당연히 조화옹(조물주)이겠죠.

0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십이루(十二樓) 어디대오
 오색운(五色雲) 깊은 곳에 자청전(紫淸殿)이 가렸으니
 천문(天門) ㉠ 구만 리(九萬里)를 꿈이라도 갈동 말동
 차라리 식어지어 억만(億萬) 번 변화(變化)하여 [A]
 남산(南山) 늦은 봄에 두견(杜鵑)의 녀이 되어
 이화(梨花)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올거든
 삼청동리(三清洞裡)*에 저문 하늘 ㉡ 구름 되어
 ㉢ 바람에 흘러 날아 자미궁(紫微宮)에 날아올라
 옥황(玉皇) 향안 전(香案前)의 지척(咫尺)에 나아 앉아
 흉중(胸中)에 쌓인 말씀 쓸커시 사뢰리라 [B]
 어와 이 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에 늦게 나니
 황하수(黃河水) 맑다마는
 ㉣ 초객(楚客)*의 후신(後身)인가 상심(傷心)도 끝이
 없고
 가 태부(賈太傅)*의 녀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고
 형강(荊江)은 고향(故鄉)이라 십 년(十年)을 유락(流
 落)하니
 ㉤ 백구(白鷗)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루는 듯 괴는 듯 남의 없는 입을 만나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의 꿈이조차 향기롭다
 오색(五色)실 이음 짙아 임의 옷을 못 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恩)을 추호(秋毫)나 갚으리라
 백옥(白玉) 같은 이 내 마음 임 위하여 지키더니..... [C]
 장안(長安) 어젯밤에 무서리 섞여 치니
 일모 수죽(日暮脩竹)*에 취수(翠袖)도 냉박(冷薄)할
 사* [D]
 유란(幽蘭)을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E]
 약수(弱水) 가려진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조위, 「만분가(萬憤歌)」-

* 삼청동리: 신선이 사는 동네 안.
 * 초객: 나라의 시인 굴원.
 * 가 태부: 한나라의 태부 가의.
 * 일모 수죽: 해 질 녘 긴 대나무.
 * 취수도 냉박할사: 푸른 옷소매도 차디차구나.

-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반복하여 상대방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④ 풍자적 기법을 활용하여 교훈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경물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05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
- ② ㉡: 화자와 대상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 ③ ㉢: 화자와 대상의 만남을 도와주는 매개
- ④ ㉣: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
- ⑤ ㉤: 화자가 교감을 나누는 존재

06 <보기>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만분가」는 유배를 간 작가가 천상의 옥황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연군(戀君)의 마음을 표현한 유배가사의 효시이며 이후 여러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가사 문학의 대표작인 「속미인곡」 역시 탄핵을 받아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 작가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만분가」의 형식을 계승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보기 2]

모침(茅簷)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가]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장이니
저근덧 역진(力盡)하여 풋잡이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입을 보니
옥(玉) 같은 얼굴이 반(半)이 넘게 늙으셨네… [나]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삶자 하니…… [다]
눈물이 바라 나니 말씀인들 어이 하며
정(情)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떤었으니
방정맞은 계성(鷄聲)에 잠은 어찌 깨었는고
어와 허사(虛事)로다 이 입이 어디 간고
결에 일어나 앉아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라]
어여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식어지어 낙월(落月)이나 되어 있어… [마]
임 계신 창(窓)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 ① [A]와 [마]에는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 ② [B]와 [다]에는 마음에 담아 둔 말을 실컷 전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 ③ [C]와 [나]에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 ④ [D]와 [가]에는 임금과 떨어져 있는 고독한 시·공간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함이 담겨 있다.
- ⑤ [E]와 [라]에는 먼 곳에 있는 임금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이 담겨 있다.

이별 파트 [1~3]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방옹시어』

1. 코멘트

『방옹시어』는 단일 작품으로 출제되기도 하였지만, <보기> 등에도 자주 발췌되어 나오는 작품입니다. 이 지문의 경우, 고전시가의 핵심적인 표현법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니 (가)~(마)의 지문을 익혀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기]

「방옹시어」는 선조(宣祖) 사후에 정계에서 밀려난 신혼이 은거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한 시조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30수는 몇 개의 작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궁심을 표현한 작품군, ‘님’으로 표상되는 ㉡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표현한 작품군 등이 있다.

『방옹시어』의 창작 배경을 알려주는 <보기>입니다. 주로 자연에 사는 은자의 자족감과, ‘님’으로 표상되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작품들이라고 하네요. 둘 모두 앞선 지문들을 공부하며 직접도록 봤던 내용들이죠? 각 수가 어떤 작품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가)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못쳐세라

→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어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초즈리 뉘 이스리

→ 시비(사립문)를 열지 마라 날 찾을 이가 누가 있겠느냐

밤등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괴 벗인가 흐노라

→ 밤중에 뜨는 달이 그 벗인가 한다

<1수>

(나)

섯 7래 기나 조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 서까래 기나 자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죽은 줄 웃지 마라

→ 초가집 작다고 웃지 마라

어즈버 만산 나월(滿山蘿月)이 다 니 거신가 흐노라

→ 아아 달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8수>

(다)

한식(寒食) 비 온 밤에 봄빛치 다 퍼졌다

→ 한식 비 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무정(無情)한 화류(花柳)도 재를 아라 피엿거든

→ 무정한 꽃도 때를 알아서 피엿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논고

→ 어찌하여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는가

<17수>

(라)

어지밤 비 온 후(後)에 석류(石榴)꽃지 다 피엿다

→ 어젯밤 비 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엿다.

부용 당반(芙蓉塘畔)에 수정렴(水晶簾)을 거더 두고

→ 연못가에 수정렴을 걸어 두고

늘 향한 깊은 시름을 못내 푸러 흐노라

→ 누굴 향한 깊은 시름을 못내 풀어 하노라

<18수>

(마)

창(窓)밭기 위석버석 님이신가 이러 보니

→ 창밖에 바스락바스락 님인가 이렇게 보니

혜란 혜경(蕙蘭蹊徑)에 낙엽(落葉)은 무스 일고

→ 혜란 혜경에 낙엽은 무슨 일이고

어즈버 유한한 간장(肝腸)이 다 끈칠싸 흐노라

→ 아아 유한한 간장(창자)이 다 끊어질까 한다.

<19수>

- 신혼, 『방옹시어(放翁詩餘)』 -

1번 문제는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로, 내용 이해보다도 기본적인 문학 개념을 묻는 유형입니다. 1번 문제를 틀렸다면 고전시가보다도 문학 기초에 대한 공부를 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번 문제는 <보기>의 설명에 따라 각 작품들을 분류하는 것으로, 각 수들의 주제만 잘 파악했다면 무리 없이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3번 문제는 ‘착각 모티프’의 두 작품을 비교하는 유형으로, 비슷한 작품 사이에서 공통된 요소와 구별되는 요소를 잘 파악하며 독해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작품 모두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형식이니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0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4%	76%	11%	4%

① (가)에서는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문답’을 허용하려면 질문과 답변이 모두 등장해야 하지만, (가)에서는 둘 모두 찾을 수 없습니다.

②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언급 자체를 찾을 수 없으므로, ‘과거와 현재를 대비했다’는 내용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③ (다)에서는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다)의 초장은 비가 와서 ‘봄빛치 다 퍼’진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노고’라고 말하며, 임이 부재한 상황과 그로 인한 자신의 정서를 묘사하고 있으므로 ‘선경후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라)에서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심리적 변화를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화자는 ‘깁흔 시름’이라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긴 하지만, 특정한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지도, 심리적 변화를 표출하지도 않습니다.

⑤ (마)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들을 점층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의인화도 없고, 대상이 지닌 속성들을 나열하지도 않습니다.

02 <보기>의 ㉠, ㉡를 고려하여 (가)~(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5%	10%	75%	6%

[보기]

「방옹시여」는 선조(宣祖) 사후에 정계에서 밀려난 신희이 은거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한 시조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30수는 몇 개의 작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궁심을 표현한 작품군, ‘님’으로 표상되는 ㉡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표현한 작품군 등이 있다.

① (가)의 ‘눈’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의 은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 주는 단서이다.

(가)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못쳐세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초즈리 뉘 이스리
 밤달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괴 벗인가 흐노라

‘눈’이 자연에 있는 화자의 은자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시어는 맞지만, 은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 주는 단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기>의 내용을 보면 정계에서 밀려났다고 했으니,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죠.

② (나)의 ‘수간모옥’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의 답답한 심정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나)

섯꺽래 기나 조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죽은 줄 웃지 마라
 어즈버 만산 나월(滿山蘿月)이 다 니 거신가 흐노라

‘수간모옥’은 다른 고전시가들에서도 은자로서의 자족감을 보여주는 소재로 자주 활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찾아볼 수는 없네요.

③ (나)의 ‘만산 나월’은 ㉡와 연관된 시어로, ‘님’이 부재한 상황을 절감하게 하는 소재이다.

(라)

섯꺽래 기나 조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죽은 줄 웃지 마라

4 필수 어휘 단어장

관동별곡

01 ★★★		키워드 : 자연
강호 ≡ 임천, 연하, 초야, 죽림	뜻	[명사] 강과 호수 ⇒ 자연.
	팁	고전시가를 독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임천', '연하', '초야', '죽림' 등도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지만, 전부 자연을 가리키는 어휘로 알아두세요.
	예문	강호에 병이 깊퍼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

02 ★★		
얹피 =얹피	뜻	[부사] 앞에
	예문	벽계수 얹피 두고 벽계수를 앞에 두고

03 ★★★		
하다	뜻	[형용사] 많다
	팁	중세어에서 '하다'는 '많다'를 의미하고, 'ㅎ다'는 현재의 '하다'(do)와 동일하게 쓰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니 헛갈리지 맙시다!
	예문	백발도 하도 할샤 백발도 많기도 많구나

04 ★		
계오	뜻	[부사] 겨우
	예문	밤 계오 새와 밤을 겨우 새우고

05 ★		
ㅎ마면 =하마면	뜻	[부사] 거의
	예문	삼각산 데일봉이 ㅎ마면 보리로다 삼각산 제일봉이 거의 보일 것 같도다

06 ★★		[한자]
천고(千古)	뜻	[명사] 아주 먼 옛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팁	한자어에서 '천(千)'은 숫자 1000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주 큰 수', '아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古)'는 옛날을 뜻하니, 둘을 합쳐서 해석하면 '아주 옛날'이 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천'이라는 한자나 '고'라는 한자를 보면 의미를 추론할 수 있겠죠?

07 ★★		[한자]
흥망(興亡)	뜻	[명사] 잘되어 번성함과 못되어 없어짐을 아울러 이르는 말.
	팁	흥(興)은 흥겹다, 기쁘다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무언가가 새로 시작되거나 잘 됨을 나타냅니다. 망(亡)은 망하는 것이죠. 특히 흥(興)이 정말 자주 나오는 한자이니 알아둡시다!

08 ★★		
네	뜻	[명사] 옛, 옛날의
	예문	회양 네 일흔이 회양의 옛 이름이

09 ★★		
마초아	뜻	[부사] 마침
	예문	마초아 ㄱ 톨시고 마침 같구나

10 ★★		
고터	뜻	[부사] 다시
	예문	고터 아니 볼 게이고 다시 보지 않겠는가?

11 ★		
행장	뜻	[명사]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
	예문	행장을 다 썰티고 석경의 막대 디퍼 행장을 다 떨치고 돌길에 막대(지팡이)를 짚어